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증자 등 숙박시설에서의 요양에 대해서

2020년 8월 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는 오이타현 내 의료기관에 입원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증자나 중증화 될 우려가 높은 분에 대한 입원의료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증 또는 무증상의 환자는 숙박시설에서의 요양을 기본으로 대응하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오이타현에서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의 숙박시설에서의 요양을 8월 8일부터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1 수용시설

오이타시 카나이케 마치 1-2-1 코모도 호텔 OITA

### 2 객실 수

170실 (총 객실수 239실 중, 170실을 경증자 등 숙박 요양으로서 사용 )  
(8월 15일 신규 수용 자수는 2명, 숙박 요양자 수는 계 8명)

### 3 입소 대상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  
(고령자와 기초질환이 있는 분등을 제외)

### 4 숙박 요양 시설 운영체제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락하여, 지시를 받음

- 의사 : 온콜 대응
- 간호사 : 상주
- 현 직원 : 상주

### 숙박 요양 Q&A

Q 1 : 왜 자택이 아닌 숙박시설에서 요양을 합니까?

A 가정 내에서 감염 확대 방지 관점으로, 경증 또는 무증상인 분은 숙박시설에서의 요양을 기본으로 합니다

Q 2 : 환자 입소 시 반송은 어떻게 합니까?

A 입소 시에는 오이타현이 준비한 전용차량으로 반송을 합니다

Q 3 : 환자가 시설밖에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A 환자는 자기 방에서 요양을 하기 때문에, 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또한, 식사,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전부 시설 안에서 제공합니다

Q 4 : 안전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A 감염대책 전문가에 의한 현지에서의 지도를 받고 있어, 시설 내에서 환자의 거주 에리어 구분을 포함한 감염 대책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 5 : 환자에게서 스태프로 감염되는 위험은 없는가?

A 스태프과 환자는 거주 에리어를 구분해 있으며, 또, 건강관리와 연락 등은 전화로 확인하기 때문에 환자와 스태프이 대면하는 일은 통상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대면하는 경우나 환자 거주 에리어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도, 방호구 등을 이용해 감염 예방책을 철저히 해, 스태프 감염대책에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코모도 호텔 OITA 에 대한 취재, 문의는 삼가 하시길 바랍니다.